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북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봐야 할까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지난해 세 차례 중국 방문에 이어 올해 첫 방문이니 벌써 네 번째 방문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늘 남북 및 북미 협상을 전후하여 중국을 방문하였다. 첫 번째 방문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둔 지난해 3월이었다. 2차 방문은 6·12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5월이었는데 중국과 회담 전략을 논의하였다. 6·12 선포서 회담 직후 단행된 3차 방문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현재의 네 번째 방문을 통해 향후 북한의 전략을 가능해 볼 수 있다.

지 제재 완화를 유보하는 미국에 대해 북한은 상응 조치를 요구해 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특히 지난 신년사에서 미국이 일반적으로 강요하고 제재와 압박을 유지한다던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계 짜 나갈 수 있다. 북한이 상응 조치로서 요구해 왔던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도 동시에 다룰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참여를 공식화할 수 있다. 그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부침을 느껴 왔던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적절한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할 것이다. 이번 방중 수행원으로 김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만나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예고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에도 긍정적으로 회답하였다. 며칠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위한 장소 문제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안에 발표할 것임을 언급하였다. 북미 간 일정 부분에서 조율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한다.

할지는 미지수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 전에 열릴지 후에 열릴지 불투명하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다. 만약 북미회담 전에 열릴 경우 북미 정상회담에 우호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하는 것 역시도 나쁘지 않다. 만약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가 중재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지난해 5월 판문점 2차 남북 정상회담과 같이 비핵화에 한정하여 약속으로 회담을 개최할 수 있다.

종교칼럼

우리의 소박했던 삶을 되찾자



황성호  
영남 신복성당 주임신부

39%, 초등학생 17%가 '10억이 생긴다면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응답했다.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조사에 고등학생 45%, 중학생 30%, 초등학교 19%가 '그렇다'고 답했다.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이 답변이 참 서글프다.

교 폭력, 자살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현실에서 청소년들은 상처받고 아파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아픔을 안아 줄 것인가? 그리고 누가 청소년들을 즐거움과 행복의 삶으로 이끌어줄 것인가?

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이라는 권고문을 발표했다. 교황은 이 권고를 통해 현대의 고삐 풀린 '소비주의'와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저서에서 "오늘날 우리는 '배제와 불평등의 경제'에 안달"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나이가 노숙자 길에서 얼어 죽은 것은 기사화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지수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사화되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이것은 바로 배척입니다"고 말했다. 교황은 돈의 노예가 되어 무너져 버린 인간성 회복을 위해 세상을 향해 외쳤던 것이다.

기고

초고층 개발 시대, 고도 제한과 다양성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을 해왔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2015년에 건축법에 의한 도로 사선 제한 기준을 폐지한다. 도시 경관이 바람직하지 못한 건축물을 양산하고, 개발 경제성을 낮춘다는 이유이다. 그 이후 도시는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경에는 건축과 도시를 설계하는 기준 적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확일성을 피하는 방법은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있을 수 있게 된다.

다. 도시 계획과 도시 경관 계획은 이러한 다양성을 어떻게 보장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이는 프로젝트의 다양한 디자인 시뮬레이션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러한 다양성이 보장되는 기준을 어떻게 세우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한다. 사업 계획을 평가하는 행정에서도 그러한 시각에서 평가 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社說

‘나주 SRF’ 거버넌스 출범 이젠 해법 찾아야

나주 SRF(고형 폐기물) 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출범과 함께 어제 첫 회의를 가졌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 폐기물을 태워 빛가람 혁신도시에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로 1년째 가동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현안 가운데 하나다.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난제임에 분명하다. 난방공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발전소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주민들의 건강이 담보되지 않는 한 가동은 불가하다며 평행선을 달려 왔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그 사이에 끼여 어정쩡한 행정을 한 것도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이다.

친일 잔재 청산도 좋지만 ‘다크 투어’ 활용을

광주시가 어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교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수행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광주·전남 출신 친일 인사 관련 유적이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광주 시내 주요 대학과 일선 중·고등학교 15개교 교가 역시 친일 음악가들이 작사·작곡한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는 3·1만세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해이다. 그 어느 해보다 상징적이고 의미 깊은 해인데 광주·전남 지역에 남아 있는 친일 잔재가 이렇게 많았다는 충격적이다. 해방 이후 친일 잔재 청산을 제대로 못한 결과일 것이다. 제대 인적·물적 친일 잔재 청산을 못하면서 한국 현대사는 많은 진통을 겪어야 했다.

無等鼓
치열하게 승부를 다투는 스포츠 세계에서 순간순간 '운명의 장난'처럼 재앙이나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른바 '저주'라 불리는 징크스다. 미국 프로 야구 보스턴 레드삭스는 '밤비노의 저주'에 86년간 시달렸고 시카고 컵스는 '염소스의 저주'를 쓰는 데 무려 108년이 걸렸다.

모든 개발 사업은 도시계획법 안에서 개발을 보장하되 아름답고 특색 있는 건축과 도시가 되는데 기여해야 한다. 도시 공공성을 지키는 기준으로 가장 기여도가 큰 것은 도로다. 도로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

적, 토지가 도로에 면한 폭과 깊이, 도로의 폭 등 조건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토지가 아주 넓으면, 고층이 될 수 있다. 도로의 사선 제한 기준, 인접하는 토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기준으로 변화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축물의 높이는 도로와 토지의 조건에 따라 공간의 개방성, 도로의 인프라 지원의 용량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규모 단지 계획 프로젝트, 여러 개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건축물은 최고 높이를 검토하며, 다양성이 적용되도록 하는 기준이 있다. 단지 내 건축물들의 평균 최고 높이, 평균 최고 층수로 적용되어야 한다. 일단의 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스카이라인의 변화는 도시 경관을 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 건축물 디자인에서 대지와 만나는 부분과 스카이라인을 디자인하면 그 건축물의 반을 디자인하는 것과 같다(C. Williams). 고층 건축물일수록 그 시각적인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